

장애노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삶의 변화 연구

-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활용하여 -

연구책임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박종엽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현숙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발전연구소 연구원
연구지원 김나연 경기복지재단 위촉연구원

감 수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자문위원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선덕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박익샘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여 백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5 Fax : 031-898-5935 E-mail : kicsos@ggwf.or.kr

여 백

요 약

-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 정도를 질적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약 35%로 장애인 중 3명중 1명이 장애인으로 볼 수 있었고, 장애인복지 정책, 서비스, 사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고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서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도 매우 적어 이에 대한 지원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적거나 미비한 이유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이후 변화정도가 비효과적이어서인지, 아니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이 부족하여서 인지를 문헌 검토, 집중집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첫째, 경기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테마, 즉 관계증진 활동, 문화여가활동, 주체적 자립생활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감 감소,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음. 또한 동료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 즐기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특히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울감의 감소, 대인관계 능력 증진,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보여줌.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정부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이용한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우울증의 염려에서 행복한 감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과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참여 후 활동에 관한 훈련이 동행한 결과 신체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 사회활동과 관계에서 소외되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참여자와 진행자, 복지관 직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집안에서만 있다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는 점, 가족과 프로그램 지도자 등에 의한 외적 지지체계가 확보되었다는 점, 프로그램 초기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새로운 삶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하여 사회관계의 확장과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높아지고 확대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욕구 표출을 시도할 정도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조금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화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동 지원 사업에서부터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여 백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2
3. 연구 방법 • 2
4. 연구 흐름도 • 3
5. 기대 효과 • 4

II. 이론의 배경 / 5

1. 장애인 • 5
2. 경기도 장애인 현황 • 14
3. 경기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사례 검토 • 18

III. 연구방법 : 객관적 해석학 / 22

IV. 연구결과 / 30

1.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정과 일반적인 현황 • 30
2. 분석 결과 • 31

V. 결론 / 41

여 백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2007년 32.7%, 2009년 35.8%, 2011년 3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향후 전체인구의 고령화 지수와 더불어 장애인의 고령화 지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노승현, 2007; Glenn, 2001; 변용찬 외, 2006; Wilder, Ansello, 2004).
-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장애인 505,052명 중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비율이 약 35%(약 17만명)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중 3명중 1명이 장애노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 서비스, 사업에서 장애노인을 위한 사업은 1~2개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서도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적어(5% 미만) 이에 대한 지원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노인 대상 지원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적거나 미비한 이유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이후 변화정도가 비효과적이어서인지, 아니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이 부족하여서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또

한, 선행연구이었던 경기도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연구에서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제언의 타당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것도 동시에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 정도를 질적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의 삶의 변화 분석 및 검토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및 31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연구의 시작점인 2013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 확산될 시점인 3~5년 정도

3. 연구 방법

- 문헌검토 :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와 사례에 관한 검토 및 분석
- 집중집단 인터뷰 및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통한 의미 파악 및 분석 : 장

2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삶의 변화 연구 -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활용하여 -

애노인 대상프로그램 참여자 중 초점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이후 삶의 변화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 및 분석

- 자문회의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연구의 흐름과 내용에 관한 자문절차를 수행함.

4. 연구 흐름도



5. 기대 효과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여, 장애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제시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삶의 변화 정도의 실제적인 의미 파악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방안 제안

I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 장애인의 기준은 주로 신체적, 지적 결함의 정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제한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참여제한 정도로 장애인을 판정하고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정무성 외, 2012). 노인의 경우 사고나 질환 혹은 정상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상태를 경험하여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수행이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장애”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조윤득, 임혁, 2010)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개념은 노인과 장애에 대한 각각의 개념 정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음.
- 노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나이의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넓고 개인차도 크기 때문에 공통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음. 더구나 장애의 경우에는 손상·기능장애(impairment), 활동제약(Activity Limitation), 참여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s) 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의 모델과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됨.

- “장애노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지만, 장애의 시점이나 원인,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기준의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 노인문제와 장애문제를 이중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써 비장애노인이거나 노년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보이는 특수한 집단으로 이해됨.
- 전체 장애인구 250만명중 65세 이상의 노령비율은 약 34%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비율은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가장 근접하게 장애를 가진 노인의 현황으로 볼 수 있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장애출현율은 5.47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7세까지의 아동기의 장애출현율은 0.92%, 18~29세까지의 장애출현율은 1.41%, 30대에서는 2.41%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40대의 장애출현율은 4.53%, 50대와 60대 초반의 장애출현율은 9.59%, 65세 이상의 장애출현율은 18.69%로 조사되어 중장년층의 장애출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최영, 2008).
- 장애노인은 고령화된 장애인(장애인의 노화, aging with disability)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과, 장애원인, 유형, 신체적·심리사회적 문제나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서비스 등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장애노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는 양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노승현, 2007).

1) 고령화된 장애인

-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이란 선천성 장애인 혹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보통 10~20여년)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노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장애로 인한 문제와 노령으로 인한 문제의 이중적인 위험과 더불어 조기노화, 이차적 장애가 나타나는 등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고령화된 장애인들에 관한 국내에서의 실증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태임에 비해 외국에서는 대체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로 인한 구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고령화된 장애인의 증가요인에 대해 Glenn(2001)은 노화, 빈곤, 의료기술의 진보, 새로운 장애상태의 출현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의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장애유형의 출현과 더불어 제반환경이 새로운 유형의 장애노인을 양산하는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즉, 기존의 장애상태로 인하여 신체적·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 더하여 노화로 인한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장애개인이 갖는 어려움이 배가되는 상황임.
- 고령화된 장애인들은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기노화(premature aging)의 경험이 신체적 기능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Zarb와 Oliver(1993)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장애발생이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약 20년 정도 일찍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45~55세에 노화가 시작되며, 신체기능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함.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20~25세 빠르게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차적 현상(secondary condition)이 2~3배 증가하여 나타남. 예를 들어 소아마비 장애인에게는 순환계 질환율이 4배, 당뇨가 5~6배,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골절이 5배 더 많이 나타남. 고령화된 장애인들은 조기노화와 이차적 장애로 인하여 신체 기능적인 측면(ADL, IADL)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2011).
- 또한 장애유지 기간이 길수록 이차적 건강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생활만족도는 더 낮아지며(Campbell and Kemp, 1997), 기존의 장애조건과 노화로 인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우울감이 2~3배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옴(Kemp, Adams and Campbell, 1997).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고령화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고령화된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정체성을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어 사회적 모델에 따른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주관적 신체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 또한 전 생애기간중에 노년기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증가,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은 관계로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음.

2) 노화에 따른 장애인

- 노화에 따른 장애인(disability with aging)이란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장애 상태로 살아오다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 사고나 자연적 노화과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를 경험하는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

려운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Verbrugge and Yang, 2002; Sheets, 2005).

- 노인인구중 약 80%가 하나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만성 질환 유병율이 매우 높으며(홍미령 외, 2004),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경우 유병율은 확정적 치매비율이 전체 10.3%, 치매의심은 15.7%로 보고되고 있는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율은 높아지며, 유배우자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더 높다고 조사되고 있음.
-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의 어려움은 우울과 삶의 질,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우울증상은 노인의 55.8%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매우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홍미령 외, 2004). 또한 여성이면서 노화에 따른 장애인일수록, 뇌병변 장애이면서 사별, 저학력,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연령과 장애정도별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김용섭, 2009; 이중섭, 2010).
- 이러한 만성질환과 우울감은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심각한 중증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전보영 외, 2011; 이인정,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의 융합된 측면의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히 노인으로 취급하여 요양과 의료적 서비스 접근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게는 고령화된 장애인에 비해 ‘자신이 장애인이다’

라는 장애정체성이 없는 관계로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재활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수가 다른 장애연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김동배 외, 2009; 권오균, 2008), 이들을 위한 접근들이 요양과 의료적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어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노화에 따른 장애로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의 장애, 이로 인한 우울감 증대,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감소, 1차 부양부담자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재가서비스의 미비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음(남기민 외, 2006).
-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는 고령화된 장애인에 비해 장애정체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노화에 따른 어려움이나 불편함과 관련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건강과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개입과 재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시설보호서비스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김성희 외, 2011).

3) 통합적 접근

- Winder와 Ansello(2004)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된 장애인의 수도 동일하게 증가하였으며 과거 20년 동안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25세에서 49세로 약 2배 정도 연장됨. 향후 30년 이내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평균수명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경우 장애인중 소수만 거주시설(전문시설)에 거주하고 대부분이 재가, 지역사회에서의 재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노약자-장애인 2세대 가족(two-generation geriatric families)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음.

- Ansello와 Janicki(2000)는 고령화된 국가는 지역사회에서 거주(전문)시설에 대한 요구보다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장애특성상 2차장애로 출현빈도가 높은 노인성 질병에 가까운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 접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함. 따라서 노인복지영역과 장애인복지영역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노인 2세대, 즉 장애인-부양자 세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봄. 이는 결국 장애인의 고령화와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의 고령화에 대한 장애인복지영역과 노인복지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장애인과 전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과 기능상태, 여가이용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김찬우, 2013). 물론 개인소득원의 비중이 장애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76.3%로 나타나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전체 노인의 경우에서도 주요 소득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인수입액의 경우에도 양 집단간 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동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장애노인이 포함된 전체노인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 있는 관계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특

성중 조기노화라는 특성을 간과하여 장애유형중 일정장애유형인 지적, 자폐성, 일부 내부기관 장애 등을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도 출된 것임. 따라서 해당문제점을 제거하더라도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공유영역을 찾아내고, 서로 상호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됨(노승현, 2012).

- 두 집단, 즉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의 정체성의 차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상이점, 장애와 노화중 강조하는 측면의 차이, 제도와 서비스 구축 배경이 되는 이론과 신념의 차이 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두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 이는 장애여부와는 상관없이 노화는 생애전반에 걸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적인 개념이고(노승현, 2012),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표출되고 요구되는 서비스영역은 바로 일상생활, 도구적 일상생활을 지원해 달라는 것임.
- 비장애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이용비율은 8.8%, 장애인노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비율은 6.2%로 두 집단 모두 이용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용희망률은 24.4%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75세 이상의 연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여가문화서비스, 식사서비스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비장애노인들의 경우에는 식사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식사지원서비스는 장애인노인의 요구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음(김찬우, 2013).
- 고령화된 장애인과 일반노인 또는 노화에 따른 장애인 집단은 모두 겹으로 나타나는 현상, 필요로 하는 것, 표출된 문제 등의 양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상생활동작 지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지원, 부양가족과의 어려움과 1차적 부양부담자의 상실과 더불어 최근 노인영역에서도 사회참여와 활동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 또한 장애정체성에 대한 수용정도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서비스 지향점과 출발점이 서로 상이하며, 이념과 관점, 장애유형, 유병율 내용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책결정에 있어 두 집단의 서비스 연계는 꼭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령화된 장애인의 이차장애에 의한 제약조건과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연계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임(Putnam, 2007).
- Tamar Heller(2004)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노화 지원-성과(support-outcome) 모델을 주장하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환경과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성과로 자립, 높은 삶의 질 구현, 신체적·정서적인 안녕 고취,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적능력과 적응적인 기술 능력을 포함한 능력영역, 가정과 일, 지역사회와 사회환경 영역,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지원을 포함한 건강영역으로 구분함.

2. 경기도 장애인 현황

- 2013년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수는 약 250만명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의 등록장애인은 약 505,000명으로 전국의 20%를 점하고 있음. 특히 60세 이상 장애인은 222,577명으로 전체의 약 44%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연령대별 수치를 살펴보면, 60~64세가 48,499명, 65~69세가 52,117명, 70~74세가 52,251명, 75~79세가 38,457명, 80~84세가 19,826명, 85~89세가 8,378명, 90~99세가 2,895명, 100세 이상이 64명으로 조사됨. 즉, 60대의 장애인 인구가 100,616명, 70대의 장애인 인구는 90,708명으로 높게 나타남.
- 경기도의 31개 시군별로 비교해 보면, 중고령 장애인수(45~60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는 부천시(13,566명, 4.12%), 수원시(12,920명, 3.58%), 안산시(12,332명, 4.56%), 성남시(11,977명, 3.73%), 고양시(10,701명, 3.72%) 등이 10,000명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61세 이상은 고양시(16,488명, 46.13%), 수원시(15,829명, 40.64%), 성남시(15,060명, 41.20%), 용인시(14,034명, 45.93%), 부천시(13,820명, 38.48%), 남양주시(11,565명, 44.03%), 안산시(10,751명, 32.95%) 등이 10,000명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이러한 비율은 경기도가 도시와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중고령장애인과 고령장애인 즉, 장애인의 비율을 검토할 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인구비례에 따라 비교할 경우에는 과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산어촌의 고령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

- 경기도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단위의 고령화 비율보다는 낮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의하여 검토할 경우 약 2명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즉, 경기도는 전체 장애인 중 약 44%가 장애노인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 서비스의 경우 최소 40% 정도는 이들을 위해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장애노인의 수치도 동일하지만, 중고령(노동부의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정의를 기준) 장애인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현재의 중고령 장애인들이 역연령의 일정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장애노인으로 합류하게 될 경우, 장애노인의 비율은 전체장애인 구성비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임. 이들을 위한 대안이 적절하게 구축되지 못할 경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세대와 장애인을 부양하여왔던 부모세대의 노화로 인한 노쇠약자 세대 즉, 요보호 대상자 2세대(two-generation geriatric families)를 사회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한편,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의 유병률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고연령층일수록 높은 수준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장기요양의 수발대상 노인인구도 2006년 56만명, 2008년 61만명, 2010년 6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유병율과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 제약정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등록장애인은 77

만 5천명으로 추정됨. 이 수치는 동일연도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상이함에 따라 장애를 가진 노인으로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관련통계자료의 미비로 많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장애발생시기, 기간, 장애유형 등에 대한 심층적인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함.

- 2013년도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지원 등 총 117개 사업이 수행됨. 이들 사업중에 장애인노인을 이용자격에 명시한 사업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사업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사업 등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즉, 장애인노인관련 장애인 복지 사업은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단위사업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장애인노인 관련 사업은 기존 사업 내에서 장애인노인을 암묵적으로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복지 시책과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노인 시책중 장애인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통신요금 감면, 교통요금감면, 공공시설요금 감면의 순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비율과 순위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 생애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이나 이용하고 있는 시책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있는 시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순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동지원센터, 재활 병의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체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순위와는 상이한 결과임. 즉 전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이용비율과 순위에서는 각 연령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순위의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가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 즉 식사지원서비스 등은 그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에서 발간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0~2012년에 실시된 경기도 장애인재활프로그램 269개 모두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전체 재활프로그램에서와 그것을 대표하는 성과분석 프로그램에서도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불과 1~2개에 불과하였음.
- 또한 복지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장애노인과 관련한 프로그램의 실시현황을 알아보려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2013. 4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의 협조(공문처리)를 얻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내 2012년 실시되었거나 2013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총 10개 기관에 31개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어 그 절대적인 빈도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장애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그 빈약함을 더욱 드러내고 있음.
-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의 결과에

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듯이,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미미하게나마 실행되고 있다는 것임. 비록,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만큼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더라도, 장애노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만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흐름은 현재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실무자의 집중집단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음.

3. 경기도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 사례 검토

: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나고(신나는 나의 인생을 향해 Go)

- 2013년 실시된 “신나고(신나는 나의 인생을 향해 Go!) 시즌 II”는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0 세 이상의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여가활동과 동시에 본인의 장애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임.
- 대상자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50세 이상의 장애노인으로서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2012년도 신나고 시즌 I 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대상자별 유형은 뇌병변장애 7명, 정신장애 1명, 지적장애 1명, 지체장애 10명, 청각장애 1명 등 남성 13명,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한 달 동안의 홍보기

간을 거쳐 2013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1회씩 총 32회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1,0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됨.

-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테마, 즉 관계증진 활동, 문화여가활동, 주체적 자립생활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감 감소,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음. 또한 동료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 즐기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특히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 노인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0.9%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이중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가 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시횟수, 교재교구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2.6%의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세 가지 영역 중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프로그램 별 세부 만족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상시 쉽게 할 수 없었던 외부체험이나 플라워 아트와 같은 문화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나 우울증 해소를 비롯한 대인관계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됨.
- 문화여가프로그램 수행을 통한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우울증 검사에서는 매 회기마다 평균적으로 참가한 17명 모두가 우울증 지수가 감소 또는 동일하게 조사되었으며, 대인관계 능력검

사와 자아존중감 검사에서도 향상되었다고 조사됨.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감소,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증진을 통하여 주체적 사회참여 자로서 역할증진 효과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들 수 있는데, 내부요인으로는 프로그램 진행초기에는 참가자 스스로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든지, ‘나는 할 수 없다’ 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됨. 또한 외부 요인으로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단체나 기관, 공연(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등이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음. 이는 대부분의 공연들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평일보다는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집중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보았을 때 장애노인의 증가는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마련이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태임. 신나고 프로그램은 장애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장애노인의 심리적 안정, 대인관계 증진,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임.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나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에게 장애노인의 역량 강화와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즉,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중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부분을 타 유관기관에서 확대 시행하여 향

후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연계를 실시해야 함.

- 장애인들은 노인성 질환과 사회적·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한적인 일상생활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역량강화 기회의 부재는 또 다른 건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격리, 자살, 은둔생활 등의 사회문제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울감의 감소, 대인관계 능력 증진,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보여줌.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정부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장애인들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움이 실시되는 등 장애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및 제도마련에 신나고 프로그램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방법 : 객관적 해석학

- 딜타이는, 주요 철학자이며 문학 역사가, 일반적으로 인간과학의 현대 해석학적 분야의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있음(Howard, 1982). 그의 목적은 인간 실존(존재)과 경험의 연구를 위해 광범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것이었음. 딜타이는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였음. 원자, 돌, 그리고 꽃들, 또는 심지어 곤충과 쥐와 달리,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는가를 반성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하고, 우리는 인습을 받아들이고 전통을 따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반성의 과정과 자기-해석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 존재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임. 더욱이, 인간 학문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동료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통찰의 직접성(즉시성) 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 또한 고려되어야 함. 해석학은, 해석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법론, 이러한 도전을 다루기 위해 딜타이가 제안했던 해결책임.
- 해석학은, 딜타이(1900/1976)가 텍스트 주석의 실천과 기술 또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존재와 경험의 ‘기록된 표현’의 이해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임. 체험, 표현, 그리고 이해(experience,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사이의 관계는 딜타이의 해석학의 개념에 대한 열쇠이며(see Palmer, 1969), 그리고 인간 과학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로서 어떻게 해석학이 기능하는가에 대한 그의 이해에 핵심임(Tappan, 1997).

- 독일에서 질적 연구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막스 베버로부터 출발한다고 알고 있음. 1904년에, 그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발표한 이후인데, 그 연구는 질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독일에서 질적 연구의 첫 번째 제안자의 역할에 대한 다른 주창자들은 짐멜과 만하임임. 짐멜은 연대 질적 연구와 유사한 일종의 경험적 자료(종종 역사적)를 사용하여, 우정 패턴, 사회적 거리와 개별화에 대한 공간 조정의 영향, 그리고 패션과 같은 많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였음. 그러나 짐멜은 이러한 자료를 가설적 이론 논의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음. 그는 경험적 자료로부터 그의 이론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주장에 대한 예로서 자료를 사용하였음. 더욱이, 짐멜이 그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연구 노력의 부분이 아니었으며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음.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사고와 역사철학의 문제만을 제외하고 출간된 작업에서 논의되지 않았음. 경험적 자료에 대한 짐멜의 사용은 현대적 자료수집과 해석이 실시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 같은 종류로, 칼 만하임은 이론적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음. 그는 “이해(Verstehen)”의 다른 유형이 주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방식을 또한 반영하였으나 경험 연구에서 그의 방법론적 통찰의 체계적인 사용을 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현대의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의 관점에서, 짐멜이나 만하임 모두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해질 수 없음. 그들의 작업은, 막스 베버나 알프레드 슈츠와 같이, 이론이 경험연구와 관련하여 방법론의 기초라는 것을 모든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알기 쉽게 만든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회과학을 위한 해석학적 분석의 적절성은 푸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

론의 대표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에 의해 지적되어 왔고 열정적으로 방어되어졌는데, 그는 해석학이 문화 또는 사회과학에서 보다 적절한 방법론적 입장을 대표한다고 주장해 왔음. 그렇게 함으로써, 하버마스는 사회탐구의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에서 내재하는 도구적 이성의 논리를 비판하는 수단으로서 해석학을 활용하는 것을 추구해왔으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사회탐구를 위한 대안적 정향을 제안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음.(Misdeld, 1976; Mendolson, 1979).

- 막스 베버의 '이해'를 통한 접근은 슈츠(Schütz)를 매개로 현재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이해를 통한 해석적 접근의 방법 가운데 독일어권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객관적 해석학임. 객관적 해석학의 인식적 관심은, 소위, 사람들의 등 뒤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잠재된 구조에 중점을 둠(Hitzler, 2005).
- 객관적 해석학은 Habermas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간의 상호주관성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규칙(rule)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경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려는 과학적 해석학의 방법임. 객관적 해석학은 분석대상이 되는 행위주체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분석자가 분석대상의 위치에서 보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행위규칙 또는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규칙으로서 실제 작용하는 '의미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신진욱, 2005).
- 객관적 해석학의 주요 목표는 개인의 의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주관적 의미의 근저에 있는 숨겨진 의미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임. 이 구조는 의미맥락의 산물이며 실천의 사회적 조정을 위해 의미맥락을 제공함. 그들(구조)은 잠재적이며 - 행위자의 담론적 지식에 제한되지 않는 - 그리고 그들의 주관적 의도와 의미(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에 대해 독립적임.(Oeverman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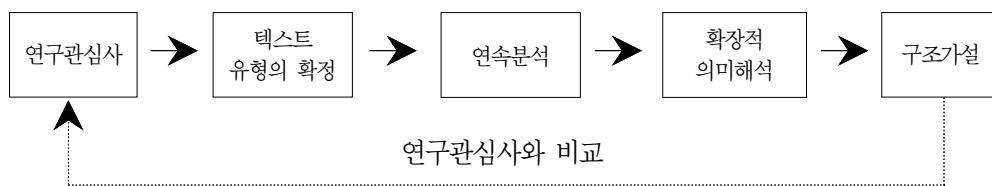
- 객관적 해석학은 다른 해석적 접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다름. 민속방법론(일상생활방법론)은 불변의 해석적 규칙과 상황에 의해 상호작용의 의미 있는 과정을 어떻게 행위자가 창조하는지에 관심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상호작용 상대방에게 해석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행위자가 상호작용의 의미 있는 과정을 창조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음. 객관적 해석학은 사회분야의 주체-독립적(subject-independent structures) 구조보다 실천의 조정에 덜 관심을 둬.
- 외버만(2001: 9)은 행위자들이 그들의 행위 디자인의 구성요소이며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끌어내는 “발생 규칙”에 대해 이야기 함.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주체-독립적 규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음. 이 재구성을 완성하기 위해, 해석학적 해석과정은 텍스트 ‘구성요소’ 또는 상호작용의 연속성에 초점을 둬. 해석은 모든 행위의 개방성과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연속성은 다음에 의해 이끌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음. (a) ‘연결점(point of connection)’을 특성화하며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것이 지속하는 가를 형성하는 규칙의 전체성, 그리고 (b) 특정한 사례 구조의 특색과 맥락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 선택 (Oevermann 1984; Lueger and Hoffmeyer-Zlotnik 1994).
- 달리 말하자면, 깔려 있는 규칙을 재구성하는 해석학적 과정에서, 진행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선택과 전체적으로 본래적 의미 잠재성을 다시 여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며, 그리고 둘째, 실제로 취해진 선택에 집중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의 특징을 되찾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반복적으로 가능한 분석한 자료를 필요로 함. 그래서 확정된 텍스트는 민족지학 방법에 선호됨. 일반적으로, 조직 문서들은 연구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를 제공함. 그러나 이 연구에서, 특정한 연구

대상은 행위자의 이야기(기술, 보고)를 이끌어내는데 보다 유망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음 : 영향력 있는 행위에 대해, 상호작용 과정과 깔려 있는 지식구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Lueger, Sandner, Meyer, and Hammerschmid, 2005).

- 객관적 해석학의 주요 전제는 첫째, 텍스트의 해석은 한 명이나 두 명보다는 팀에 의해 실행되는 것임. 팀의 요구는 합리적 담론(의견교환)이 사례의 구조적 형태를 표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의 상황이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팀의 구성원들은 그들 사이에서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소견(Lesart)을 논의하고 생각해내야 하는데 그 소견은 왜 어떤 단어 혹은 발화가 다른 것을 따르며,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가능한지를 합의에 이를 때 까지 설명해야 함. 이 그룹 합의는, 만약 엄격한 민주적 방식에 따라 도달했다면, 예를 들어, 모든 대안을 논의하고 결국 어떤 것이 옳다는 결정함으로써, 사회학적으로 충분히 사실임을 나타냄.
- 둘째, 이 분석은 엄격하게 line-by-line 순서에 의해 행해져야 함. 사례에 대한 것과 사회적 세계에 대한 모든 이전의 지식은 괄호 속에 넣어야 하는 것임. 이 과정은 사례의 객관적 형태(특성)가 논의의 해석학적 과정이 방해받지 않는 것을 통해 분명해지며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함.
- 셋째, 민주적 담론(의견교환)은 집단 내에서 지위의 차이보다는 (사례 자료와 그것의 연계에 대한) 논쟁의 강도에 달려 있음. 그래서 자료 분석은 녹화된 또는 기록된 상황에서 참여자의 삶의 구조적 결정요소의 통찰력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 단일한 자료는 축적적 자료임. 약간 크기가 크고 시간이 소모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해석학은 이제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때때로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도되고 있음.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활기찬 토론을 야기하는 콘퍼런스에서 종종 제시되며, 그리고 리포트들이 종종 비사회적 저널에서 발간됨.

- Oevermann과 그의 동료들은(1979) 객관적 해석학에 대한 사례를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 자료 해석의 어떤 과정은 결과물이 객관적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 Oevermann(1979)은 연구자는 자료 수집이 아니라 충실히 자료 분석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객관적 해석학의 목적은 숨겨진 의미구조를 발견하는 것인데, 외버만(Oevermann)은 의미구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사회적 실재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는 행위주체의 주관적 의도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고 함. 연구자는 바로 행위주체의 의도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의미를 밝히는 것임.
-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객관적 해석학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림 1. 객관적 해석학의 분석과정>

- 먼저, 연구관심사와 연관된 질문을 결정해야 함. 이 단계는 질문의 설정으로 시작하며 자료 분석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임. 즉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임.

- 둘째, 텍스트 유형의 확정단계임. 연구관심사와 연구의 목적이 정해졌으면 자료가 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됨. 즉 자료형성의 상황적 조건들을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함. 그것이 그림인지, 문서인지, 사진인지, 혹은 인터뷰인지 분석대상인 텍스트가 결정되어야 함.
- 셋째, 연속분석의 단계. 연속분석이란 자료를 개별적인 상호작용, 즉 서로 연관된 행동들로 분해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함. 해석이 줄마다, 절마다, 종종 단어마다 연속적 순서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대한 순수하게 텍스트를 바라보아야 함.
- 넷째, 확장적 의미해석의 단계. 주어진 문장, 줄이나 단어의 해석의 과정은 명백하게 조속한 동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 토론에 의해 결정됨. 즉 모든 읽기는 다음 줄로 가기 전에 토론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것이 채택되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일반화된 타자”의 보편적 언어, 논리, 도덕적 구조를 가져야 함(Oevermann et al., 1979; Gerhardt, 1988).
- 다섯째, 구조가설의 단계. 객관적 해석학의 마지막 단계는 구조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임. 그것은 초기 질문상황 설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비교 분석함.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맥락’이, 가령 텍스트내로부터 축적된 지식, 가능한 의미의 다양성을 좁히는데 사용되어지는 반면에, 외적 맥락(텍스트 그 자체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식)은 단지 해

석이 끝난 다음에 들여올 수 있다(Lueger et al, 2005)는 것임. 즉 구조의 일반화에 이르기 전 단계인 연속적, 확장적 분석단계에서는 텍스트 내의 지식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단계에 들어서 비로소 외적 지식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임. 이는 사례에 대한 의미구조가 해석과정에서 외적 지식에 의해 방해 또는 왜곡되어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IV

연구결과

1.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정과 일반적인 현황

-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경기도 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매우 드물고, 경기도 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기관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참여자의 대부분이 장애노인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양희택 외, 2013)를 준용하여 현재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2곳 중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정하고 동 복지관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노인을 선정하였음.
-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단일연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임. 이 중 제 2기(2013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노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인터뷰는 2013년 12월 10, 11일 이틀간 진행하였으며, 하루 2~3시간씩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진행자는 질적 연구의 다수 경험이 있는 전문가(공동 연구원)가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반 구조화된 질문 유형을 미리 준

비하여 이에 따라 질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전 인터뷰 참여자에게 녹음을 허락받은 후 녹음을 하여 이를 이후 분석 이전 풀어내는 과정을 거쳤음.

-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이름	나이	장애유형(등급)	이름	나이	장애유형(등급)
최 **	73	뇌병변 장애 3급	유 @@	66	지체 장애 4급
신 **	53	지체 장애 3급	신 @@	70	뇌병변 장애 2급

* 뇌병변장애의 경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발생 시기,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 역연령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지체장애의 경우 조기노화 진행으로 인하여 노인의 외양이 나타났기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 분석 결과

-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참여자 삶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범주의 변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1) 심리적, 정서적 안정 : 우울증의 염려에서 행복한 감정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우울증에 빠질 텐데, 신나고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뒤를 밀어주면서 휠체어 태워주니까 여기저기 가니까 진짜 행복했어요.(B:18-19)”

-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심리, 정서적 안정의 변화를 가져왔음. 참여자들은 장애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장애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가 강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나오기가

지 일종의 자기결심의 단계를 거치고 복지관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신체적 재활에 중점을 둔 활동에 치중하였음. 하지만 참여적, 관계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음. 참여자 A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가장 변화는 ‘웃음’이라고 표현하였음. 또한 그는 자신의 진술에서 성격의 변화를 이야기함.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부터 기분이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자신의 성격의 변화까지 연결되었다고 함.

“성격이 즐거워졌죠. 그전보다는 좀 밝아지고 특히 프로그램 한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A:226-227)”

- 더 나아가 참여자 B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정서적 환경이 바뀌어 지금은 신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함. 참여자 B는 중증장애인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외부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신체기능상의 문제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제한된 생활을 하였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참여의 일종인 복지관에 다님으로써 정서적으로 긍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음. 자칫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삶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정서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신나고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우울증에 빠질 텐데, 신나고 하니까 자원봉사자가 뒤를 밀어주면서 휠체어 태워 주니까 여기저기 가니까 진짜 행복했어요.(B:17-19)”

- 이러한 특성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공간적

범주가 매우 제한되고 또한 제한된 공간속에서도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프로그램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참여자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 참여자들은 궁극적으로 복지관에 오는 것 자체를 매우 행복하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진짜 여기 오는 게 행복이라. 여기서 맨날 여기 오재. 그래서 닻새는 여기서 살아요. 너무 행복하죠.(B:67-68)”

2) 신체적 변화 : 보조기구에서 자유로

“작년에만 해도 목발 아니면 못 다녔어요.(A:274)”

- 인간의 행동은 정서, 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음. 참여자들도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신체적 기능에도 변화가 있음을 진술하고 있음. 참여자 A는 뇌졸중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일상적 기능을 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었으며 복지관에 다니게 된 것도 지난해 중순 정도로 약 1년 반 정도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불편한 신체로 인한 어려움이 개선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처음에는 보조기구를 통해 간신히 보행을 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취약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도 보행을 할 정도로 매우 나아진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음.

“여기 올 때도 목발 집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했죠. 답답하긴 답답해도 어떻게요.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작년에만 해도 목발 아니면 못

다녔어요. 즐거우니까 여기 와서 즐거우니까 이렇게 나아진 거
지.(A:273-275)”

- 이러한 참여자의 A의 변화에 대한 요인은 정서적인 변화로 인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즉 참여자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긍정적 요소들의 자신의 신체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였음. 이는 긍정적 요소들의 참여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지속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기능도 더불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참여자 B도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중증장애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자신의 삶속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자신의 신체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특히 참여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하는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이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는 외적체계의 도움과 서비스를 통해 제한된 공간과 범주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삶 자체가 건강해졌다고 하였음.

“누가 휠체어를 끌지 아니면 어디 못 다녀요. 많이도 못 걸어 다니니까,
많이 건강해졌다고 사람들이 그러긴 하더라구요.(B:27-28)”

3) 사회관계의 변화 : 소외에서 대화의 관계로

“같이 맨날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식구보담 더 사촌보다 더 가깝
죠.(B:70-71)”

- ‘사회적 관계’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긍정적인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함. 인간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태어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임. 더불어 가장 친숙한 사회 구성원인 가족과 또래,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참여자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삶을 영위해왔지만 일종의 지지집단의 구성원과 같이 일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소속감과 집단역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음.

- 연구참여자 A와 C는 뇌졸중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이후 같은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도 활발하고 장애에 대한 동질성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기초로 한 관계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음. 그래서 같은 구성원들끼리 운동도 같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집에서 몰라요 한 5년 동안 갇혀있었어요.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고 같이 지내는 건 좋아요(A:269-271)”, “같이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은 대화 많이 하죠.(A:144)”,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세 네 사람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C:99-100)”

- 더욱이 참여자 B는 이야기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가 자주 보다 보니 사촌보다 더 가까울 정도로 매우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서로 걱정해주고 안부를 묻는 가족의 보호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같이 맨날 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식구보담 더 사촌보다 더 가깝죠.(B:70-71)”, “우리 서로 전화번호 다 갖고 있거든요. 서로 연락 안

오면 걱정이 돼서 전화하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서로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노뽀 주고 그래요. (B:82-84)”

-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밀접한 관계형성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가족과 같은 친밀한 집단의 역동이 나타나기도 하였음.

4)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 새로운 경험으로

“세상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웁고, 감사하고 그래요.(B:33-34)”

-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변화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이야기하였음. 그들은 대부분 장애로 인하거나 기존에 경험해온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픈, 일종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녹아있었음.
- 참여자 B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프로그램 과정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은 매우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왔음. 이전의 제한된 공간적 범주에서 묶여 있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은 감사로 표현되고 있었음. 특히, 그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뮤지컬과 같은 공연에 대한 참여로 인해 무척 만족해하고 있었음.

“우리는 누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집안에서만 밖에 못하잖아요. 세상구경을 못하잖아요. 세상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웁고, 감사하고 그래요.(B:32-34)” , “뮤지컬, 그런 거 갔으면 좋겠어요. 그

런 거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가기가 힘들잖아요.(B:124-125)”

- 특히 참여자 C도 복지관과 일상생활의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조로운 삶에서 프로그램과정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해봄으로써 의미를 찾고 있었음. 그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 곳에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음.

“외지 바람도 쐬고 그런 거도 느끼게 되고 하니까 보람은 더 있더라구요.(C:49-50)”, “여기에서만 있는 거 보람도 몰랐던 거를 바깥에서 현장에서 답사를 해서 보게 되니까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더라구요.(C:52-53)”

-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은 기존의 일상적 삶의 패턴에서 일탈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만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외적 지지체계 : 가족과 집단지도자

“선생님들이야 항상 친절하고. 참 웬만하면 짜증냈을 거예요(A:180)”

- 다음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삶의 변화 결과 가운데 하나는 외적 지지체계의 구성과 원조기능으로 볼 수 있음.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음. 또한 복지관에 다니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기능의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참

여로 인해 가족과 집단지도자 등 외적 지지체계가 구성되고 강화되는 결과를 나타냈음.

- 우선 참여자 A는 뇌졸중으로 자신의 재활에만 치중했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이후 집단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집단을 이끌어가는 집단지도자들의 친절함이 집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응집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였음.

“선생님들이야 항상 친절하고. 참 웬만하면 짜증났을 거예요(A:180)”

또한 참여자 B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집단지도자가 자신의 힘든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음.

“자기 힘든 거 안 생각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B:144-145)”

이와 같이 참여자 A와 B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요인으로 집단지도자의 친절과 헌신과 같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참여자 C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더라구요.(C:176)”

-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삶의 변화는 가족과 집단지도자들의 외적 지지체계구축으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인 집단역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6) 삶의 새로운 욕구의 표출 :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

“앞으로 프로그램에 조금 더 가미를 했으면 해가지구요.(A:40)”

-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삶의 변화는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음. 이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주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수동적 위치에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직접 프로그램의 변화나 방향성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 태도로 변화되었음.
- 참여자 A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의 변화에서부터 인원의 적정성, 그리고 정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너무 인원도 적고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한 사람은 올해 또 참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쪽 참가 하실 분들은 더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A:54-56)”, “프로그램은 지금 프로그램도 좋긴 좋은데 야외 나갈 적에 바깥에서 운동이라도 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화분 그런 거 보다는 음식에 대해서 건강에 이런 게 좋다는 거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A:58-60)”

- 특히, 음식프로그램의 경우 전문 강사를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음.

“요리도 요리고, 뭐 인제 전문적이라고 그래야지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라도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A:62-63)”

- 다른 참여자 B는 신체적 재활로 인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도서관을 설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였음.

“여기는 체력단련실에서 살다시피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도서관을 하나 있으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데만. 뭐 갈 저기 없고 심심하면 컴퓨터. 어 도서관 있으면 앉아서 조용하게 책 읽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B:112-115)”

- 참여자 C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일회성에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이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시기를 원하였음.

“단 한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 버리는 것보담도 이것을 조금 지속화해서 일년에 세 번 네 번 좀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C:14-16)”

-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은 기존의 수동적 위치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프로그램 참여 이후 만족한 경험을 통해 이들의 자신들의 욕구를 표출하며 적극적이며 능동적 참여자로의 삶의 변화를 나타냈음.

V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경기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약 35%로 장애인 중 3명중 1명이 장애인으로 볼 수 있었고, 장애인복지 정책, 서비스, 사업에서 장애노인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고 경기도의 특화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서도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도 매우 적어 이에 대한 지원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그러나 장애노인 대상 지원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이 적거나 미비한 이유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이후 변화정도가 비효과적이어서인지, 아니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이 부족하여서 인지를 문헌 검토, 집중집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첫째, 경기도 장애노인 대상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테마, 즉 관계증진 활동, 문화여가활동, 주체적 자립생활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감 감소,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음. 또한 동료들과 친분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여가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 즐기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특히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노인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울감의 감소, 대인관계 능력 증진,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보여줌.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나 정부지자체, 그리고 기업 등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이용한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우울증의 염려에서 행복한 감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과 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다가 프로그램 참여 후 활동에 관한 훈련이 동행한 결과 신체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 사회활동과 관계에서 소외되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참여자와 진행자, 복지관 직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 집안에서만 있다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삶의 만족이 높아졌다는 점, 가족과 프로그램 지도자 등에 의한 외적 지지체계가 확보되었다는 점, 프로그램 초기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새로운 삶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하여 사회관계의 확장과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높아지고 확대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음.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욕구 표출을 시도할 정도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따라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조금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화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동 지원 사업에서부터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참고문헌

- 경기도(2013),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경기도·경기복지재단·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2010), “2010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보고서”.
- 경기도·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2011 ; 2012), “2011·2012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평가보고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13), “2013년 주요 업무계획“,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공보위원회 자료집.
- 경기도 보건복지국(2013), “2013년 보건복지 업무통계“, 경기도 보건복지국 자료집.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2), “2012 장애인통계”.
- 권오균(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39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7-32.
- 김동배·채수진·박은영(2009), “장애노인의 장애특성이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pp. 63-86.
- 김미옥(2003), “장애노인의 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21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73-97.
- 김성희·변용찬·손창균·이연희·이민경·이송희·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찬우(2013), “고령장애인 서비스 정책의 정합성 - 고령장애인의 복지욕구와 대응방안”,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김학천(2013),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서비스 실천과제”,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김형수(1996), “장애노인의 현황 및 특성”, 『한국노년학』, 제16권2호, 한국노년학회, pp. 162-174.
- 김형수·김용섭(2009), “장애노인의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22호, pp. 184-215.
- 남기민 외(2006),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양서원.
- 노승현(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증진방안”,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학술자료집.
- 노승현(2007), “노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혜정(2006), “노령장애인의 재취업욕구와 전이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pp. 193-224.
- 변용찬·김성희·윤상용·최미영·계훈방·권선진·이선우(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은령·노승현(2012), “장애노인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재활복지』 vol. 16(3): pp.81-108.
- 백은령·노승현(2010), “노령 지체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차별경험 및 차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13. pp.1-21.
- 손복심(2005), “재가 뇌졸중 노인의 재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용진(2004), “장애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장애중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하여”, 『노인복지연구』, 통권 2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49-74.
- 송미영(2011), “남녀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제31권1호, 한국노년학회, pp. 143-155.

- 양희택(2009), “노인성 장애인 및 장애인구 노령화에 따른 현안과 대책 : 복지전반 현안과 대책을 중심으로”, 『대구재활연구』, 제25집,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pp. 35-50.
- 양희택·신원우(2011),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255-278.
- 양희택(2012),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12년 제4차 장애인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개발원.
- 윤경아·이윤화·이익섭(2000), “장애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20, no. 3. pp. 77-91.
- 윤정혜·김시월·장윤희·조향숙·송현주(2010), "패널자료 분석을 이용한 중·고령자 단독가계의 의료비지출 영향 요인", 『소비자학연구』, 제21권 4호, pp. 193-218.
- 이인정(2010), “노년기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0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5-84.
- 이준우·이현숙(2012), “장애노인의 복지서비스 검토 및 정책방안 연구 -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 경기도의회.
-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47호, 한국 노인복지학회, pp. 187-212.
- 이효성(2013), “중고령장애인의 고용 상 중복 소외 극복을 위한 발전적 제안”,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장애인 복지학회.
- 전동일(2012), “노인장애인”, 2012년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보영·권순만·이혜재·김홍수(2011),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31권 1호, 한국노년학회, pp. 171-188.

- 전영숙(2007).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여가인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윤득·임혁(2010), “일상생활수행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47호, 한국노인복지학회, pp. 31-50.
- 최영(2008), 중·장년층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토론자료,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학술자료집.
- 홍미령 외(2004), 지역유형별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욕구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igby, C.(2004), "Aging with a Lifelong Disability- A Guide to Practice, Program and Policy Issues for Human Services Professionals", Gordon Grant, Jessica Kingley Pub.
- Campbell, M. and B. Kemp(1997), "Variations in secondary conditions, risk factors, and health care needs for four groups of persons aging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34, 119-120.
- Campbell, M. L.(1996), "A Research Perspective : Next Steps on Bridging the Gap Between Aging and Disability". Maximizing Human Potential Spring, 3-5.
- _____ (1997), "Two Worlds of disability : Bridging the gaps between the aging network and the disability community". The Southwest Journal on Aging, 3(4), 3-11.
- Department of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2001), Report of the 2001.

- Invit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Ag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reman, P.(1998), "Ageing and disability : Double jeopard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3(1), 1-2.
- Gerhardt, U. 1988. "Qualitative Sociolog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Qualitative Sociology*. 11(1-2) : 29-43.
- Glenn, T. F.(2001), "Emerging Trends on Disability". *Population Today*, 29, 9-10.
- Janicki, Dalton, Henderson, Davidson(1999), Mortality and Morbidity among olde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ealth services consideration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1, 284-294.
- Janicki M. P., Ansello E. F.(2000)(edit.),"Community Supports for Aging Adults with Lifelong Disabilities",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 Kane R. L. and R. A. Kane(2001), "What Older People want from Long-Term Care, and How They Can Get it", *Health Affairs*, 20, no.6:114-127.
- Kemp, B. J., Laura Mosqueda(2004)(edit.), "Aging with a Disability-What the Clinician Needs to Know",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enneth D. Colburn(1986). "Critical Theory and the Hermeneutical Circle"*Sociological Inquiry*. 56(3) : 367-380.
- Kemp, B. J.(2000), "Quality of Life While Aging with a Disability", Rancho Los Amigo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 Kemp, B. J., B. M. Adams, and M. L. Campbell(1997),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aging polio survivors versus age-matched controls: Relations to post-polio syndrome, family functioning, and attitude toward disabil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8, 187-192.
- Lueger, M., Sandner, K., Meyer, R. and Hammerschmid, G.(2005) "Contextualizing Influence Activities: An Objective Hermeneutical

- Approach". *Organization Studies*. 26(8) :1145-1168.
- Martin, Kettner, 정무성 역(2000), "프로그램 성과평가", 나눔의 집.
- Priestley, M.(2006), "The Psychology of Disability: From Infancy to Adulthood", in Goodley, D., Lawthor, R., *Disability and Psychology*, NY: Palgrave macmillan Press.
- _____ (2000), "Adults Only: Disability, Social Policy and the Life Course", *Journal of Social Policy*, 29(3), pp. 421-439.
- Putnam, M.(2002), "Linking Aging Theory and Disability Models: Increasing the Potential to Explore Aging With Physical Impairment", *The Gerontologist*, 42(6), 799-806.
- Putnam, M. (edit.) (2007), "Aging and Disability ; Crossing Network Lin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LC.
- Sheets, D. J.(2005), "Aging with Disabilities: Ageism and More", *Generations*, 29(3), 37-41.
- Tamer Heller(2004), " Ag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Emerging Models for Promoting Health, Independence, and Quality of Life", "Aging with a Disability-What the Clinician Needs to Know(Kemp, Laura Mosqueda, edi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appan, M. B. 1997. "Interpretive Psychology: Stories, Circles, and Understanding Lived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3(4) : 645-656.
- Trieschman, R. B.(1987), *Aging with a disability*. NY: Demos.
- Verbrugge, L. M. and L. Yang(2002),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53-267.
- Walker, A. and C. Walker(1998), "Age or disability? Age-based disparities in service provision for olde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Great Britain",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3(1), 25-39.

Wilder, A., and Ansello, E. F.(2004), "Meet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ging with Lifelong Disabilities: The Area Planning and Services Committee.", *Age in Action* 19(4), pp.1-5.

Zarb, G. and M. Oliver(1993), *Ageing With a Disability: What Do They Expect After All These Years?* London: University of Greenwich.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3-26

장애노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자 삶의 변화 연구
- 객관적 해석학 방법을 활용하여 -

발행일 2013년 12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442-835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